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13 권 제 2 호 1995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와 청소년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the Nuclearization, Value Chang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Modern Korean Families

배재대학교 자연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李 美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Assistant Prof. : Mee Sook, Lee

산업화로 특징되는 사회변동과 전통사회로 부터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배경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이 가족내 청소년 발달이라는 미시적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탐색해 보는 시도로서,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핵가족화는 단순한 가족형태상의 변화로서 청소년 발달에 관련되기 보다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조상의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전통적 집단주의의 기능성이 이기적 가족주의로 변용되어 청소년 발달에 미치게 되는 역기능적 실상이 학문적 노력과 정책적 주도하에 극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Ⅰ. 머 릿 말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사다.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존적인 아동기를 지나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아를 형성하고, 기능적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자질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가정의 측면에서 청소년 자녀는 가족의 영속성을 이어갈 대상이며 가정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다. 한편, 사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건전하게 육성된 청소년들로 부터 미래사회의 발전적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는 이른바 미래사회의 주역인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 특성은 우선 개인적 발달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발달과정적 관점이라 하며 이전의 아동기와 이후의 성인기와 구분되는 청소년기 고유한 특성의 적응적 측면과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부적응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기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은 개별적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Dornbush, 1989). 어떠한 환경에 처해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1993년도 청소년문제 세미나(1993.11.8)에서 발표한 후 수정 보완한 것임. 토론자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서울대 이순형 교수와 한양대 안병철 교수께 감사드린다.

있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이에 관련되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또래집단,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를 비롯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증대되기는 하나,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가정은 일차적인 환경이다(Steinberg, 1987). 청소년의 발달의 터가 되는 가정은 사회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사회는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가족생활은 사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은 산업화를 통하여 가족의 자급자족적 기능이 상실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Adams, 1980, p94).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발달의 일차적 배경이 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관점과 가족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발달에 관련되는 환경요인들을 규명하는 생태학적 관점이나(Bronfenbrenner, 1986),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역사학적 관점(Modell, 1989)은 개인적 발달 중심에서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80년대 청소년 연구는 여전히 발달적 특성, 발달상 문제 및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연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Gecas & Seff, 1990). 그간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되는 가족 역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 역시 서구에서 형성된 미시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 왔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 보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 도덕성 및 이탈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관심사이다(권이종, 1985; 김진숙, 1983; 김진희, 1989; 노영남, 1982; 정철희.오미경, 1993). 이들 미시적 관점의 연구들은 청소년 발달과 가족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여하여 왔으나, 가족이 건전하면 사회가 건전하게 된다는 대전제 아래 가족과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간 청소년가족 연구에서 미흡했던 관점의 통합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산업화로 특징되는 사회변동과 전통사회로 부터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배경을 주축으로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이 가족내 청소년 발달이라는 미시적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가족의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가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청소년 발달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기술하려는 것이다. 이는 탐색적 수준의 논의로서 이론적 모델이나 실증적 결과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을 한국사회의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사고의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가족정책의 기본 관점을 검토하고 발전적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가족의 핵가족화와 청소년 발달

1. 한국가족의 핵가족화

현대 한국가족의 특성 가운데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핵가족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핵가족화는 단순한 가족의 형태 상의 변화를 넘어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된 사회변화 과정과 핵가족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대화 과정은 농경체제로 부터 산업중심체제로 바뀌는 산업구조적 변화와 집단중심으로 부터 개인의 인간성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산업화과정은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핵가족이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Zelditch는 핵가족화를 가능하게 하는 네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직업구조가 친족으로 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소득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확대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증가하며, 셋째로는 가족의 소득이나 지위에 부모보다 자녀들의 공헌이 더 크게 되는 경우이다. 네째 요건은 가족구성원의 이해가 가족의 존속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이다(Leslie, 1979). 산업화는 이들 네가지 요건들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보편적인 요건 외에 우리사회의 핵가족화를 가속화한 요인으로서 이농을 촉진한 저농산물 정책, 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 인구정책 등 일련의 정부 지원정책과(이효재, 1990)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유형의 변화(이재경, 1990)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사회로 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기적인 시간적 관점과 자료가 요구되나, 여기서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주도하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 1960년의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5.66명이었던데 비해, 1985년의 평균 가구원수는 4.29명으로 감소하였으며(청소년백서, 1986), 1990년 센서스 자료에서는 핵가족 가구가 69%로 나타났다. 1990년 인구주택조사와 통계연감(통계청, 1990)에서 핵가족 형태가 전체의 약 80%로 보고되고, 평균 가구원 수는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살펴 보면, 서울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본연구에서 핵가족이 86%이고 확대가족이 12.0%로 조사되었다(김순옥, 1990). 핵가족 구성비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이들 자료는 핵가족이 현대 한국가족의 우선적 형태임을 뒷받침해 준다.

2. 핵가족화와 청소년 발달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매체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산업화는 핵가족화를 가속시키고, 핵가족은 문제의 진원지라고 일반화하기에 앞서 핵가족화와 청소년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핵가족화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여러 다른 측면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과업인 동시에 국가적 관심사이기도 한 점을 상기할 때 청소년 가정의 핵가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는 단순히 가족형태상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가족구조적 요인들과 맞물려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된다. 첫째 핵가족화는 청소년 가정의 가족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가족의 축소로 인해 청소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족자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자원의 증가는 청소년의 발달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원천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가족의 축소는 구성원간에, 특히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지나치게 강한 유대를 형성한 나머지 심리적 긴장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또한 있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더불어 나타난 또하나의 변화로서 이혼율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1960년에 혼인 대 이혼의 비율이 3.1%이던 것이 1980년에 5.78%로, 1985년에 10.47%로 이혼율은 실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태영, 1987).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족은 청소년 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서 홀부모의 소득감퇴로 인한 자원의 결핍과 청소년이 성역할에 대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델의 상실,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홀부모가 자신과 가족생활에 대해 만족하며 자녀를 충분히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적인 측면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보고도 있다(Forisha-Kovach, 1983).

청소년 발달과 관련되는 또다른 변화로서 취업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직업과 가족이 분리되면서 남성은 생산을 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여성은 가족내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현재 총 취업인구 18,576,000명 중 40.4%가 여성이며, 기혼연령층으로 볼 수 있는 25세 이상의 여성만도 31.7%에 해당한다(통계연감, 1991).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머니 역할이 부실하게 되므로써 자녀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발달상의 문제는 주로 생후 2.3년 정도의 영아기와 유아기 초기에 결정적일 수 있으나, 어머니의 취업상태 그 자체 보다는 부모의 인성과 부모로서의 자질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보고

들이 있다(Schaffer, 1991). 이는 어머니의 취업을 자녀 발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만 보는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취업이 다양한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Forisha-Kovach, 1983).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가정에만 전념하는 어머니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39.7%, 직업이나 사회의 일에도 관심을 돌리는 어머니를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이 5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백서, 1975).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면서 어머니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소년의 의식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핵가족화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기동성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Parsons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직업상의 이유로 지역적 이동이 빈번해지고 이러한 잦은 이동에 대해 소인수 가족인 핵가족이 기능적인 형태로서 제시된다(Rodman, 1967). 한국역사를 통하여 해방과 6.25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제외하면 인구이동을 가속화한 주요인으로 역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의 지역적 이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면, 가족의 지역적 이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므로써 삶을 보는 관점과 사고의 폭을 넓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문화적 혼란을 가져와 정체감 형성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의 지역적 이동은 청소년기 발달의 중요한 과업인 또래집단, 즉 안정된 친구관계의 형성에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핵가족화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확대가족으로 부터 핵가족으로 단순히 형태가 변하는 데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핵가족화를 촉진한 산업화 과정의 여러 요인들이 핵가족의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핵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배경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가족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가족화에 대한 균형된 관점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핵가족화와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핵가족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현실적인 청소년 정책에도 충분히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간 핵가족화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청소년 주무 부서에서 간행하는 '청소년 백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70년대 이후 핵가족화가 청소년 발달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5년도 청소년 백서에는 핵가족은 "필연적"으로 노인소외 현상, 부부갈등 현상, 육아저해 현상을 갖게 된다고 제시하면서 핵가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1978년에는 청소년 발달과 직접 관련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 어려운 문제가정으로서 결손가족, 빈곤가족, 부모부재가족과 함께 핵가족을 문제 가정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핵가족을 문제 가정으로 유형화하는 관점은 이후 몇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1984년에는 핵가족을 문제가정 유형에서는 제외하되 여전히 핵가족을 "소수의 가족 정원으로 말미암아 대화의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 장애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교육이 부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이 1986년 청소년 백서에 삽입 되었다. 제시된 대응책은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이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 1987년 부터 현재(1992년)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 가정교육의 강화 방안은 경로효친사상의 고양과 대가족제도 유지 가정 우대를 중심적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가족화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를 재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이다. 그러나 전통적 제도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여건에 합리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가족정책은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먼저 핵가족화를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해 보자.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 전

체가구의 약 80%가 핵가족이며, 핵가족화는 개인적 선택과정이었다기 보다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대가족제도가 요구되는 이전의 농경체제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광규, 1983). 여성취업에 대해서도 가정교육 부실 등의 이유로 여성이 가정내 역할로만 회귀하는 경우 취업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의 가정복귀는 하루 아침에 우리의 산업체제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산업화는 전문화와 정보화를 포함하여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핵가족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가족을 단순히 문제가족으로 규정하고 전통적 가족제도를 그 대안으로 직선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우리의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다.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는 핵가족을 현실적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이러한 핵가족 속에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핵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발굴 강화하고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에서 살펴 본 가족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가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가족의 가치관 혼란과 청소년의 사회화

1. 현대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변용

핵가족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형태를 확대가족으로 환원한다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핵가족화로 인해 상실된 전통가족 속의 정신문화를 계승한다는 의도가 보다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특성과 이것이 현대 한국가족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 또한 전통계승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관점상의 한계를 검토하므로써 발전적인 청소년 가족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가족에 대한 전통가족의 모델로서 조선시대 가족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전통가족의 핵심적인 가치는 '경로효친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였다. '가족주의'는 개인보다 가족집단을 우위에 두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서(옥선화, 1989), 가족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었다. 나아가 가족주의는 가족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원리로서 확대되었다. 즉, 가족집단에 대한 충성이 자연스럽게 국가 등 더 큰 공동체로 확대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가족집단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에 우선했음을 지적하면서 조혜정(1985)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관료가 된다는 의미 이전에 가문에 영광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을 그 단적인 예로 들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가 지배적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친족 또는 가문 중심의 세력확장을 추구하는 지배계층의 이해에 접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나 가치관이 당시의 정치구조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이효재, 1979). 또한 가족주의는 조선시대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강화되었다. 농업중심사회에서 가족집단적 생산성 향상은 중대한 관심사였으며, 가족주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제가 되었던 것이다. 생산 단위로서의 가족은 상당히 자급자족적이어서 구성원들의 복지는 가족차원의 문제였으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적었다. 따라서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가치관은 강화되는 반면 국가 또는 사회로 확대되는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친족을 중심으로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조선시대의 가족주의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 통치를 뒷받침하는 보수적 사회제도로서 변질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을 규정하는 호적을 호구조사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개인을 '家' 또는 '가족' 속에 영속시킴으로서 개인 신분과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본 자료로 삼았다. 여기에 가부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이효재, 1990).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개인을 가족의 단위 속에 묶어 둠으로써 가족을 넘어선 민족 또는 사회의 개념이 싹틀 수 있는 소지를 말살하였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족집단주의와 상치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도입되면서 가족의 행동과 생활태도의 지침이 될 가치관은 흔들리게 되었다. 전통사회의 획일적인 가치문화와는 달리 현대 한국가족은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에서, 좁게는 가족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또는 가문 중심과 개인중심 사이에서 뚜렷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주의는 여전히 현대 한국가족의 중심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조혜정, 1985; 옥선화, 1989). 이것은 현대 한국가족이 가족의 이해를 개인이나 사회적 이해 우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통적 가족주의는 친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지침이 되는 규범이 분명하였던데 비해 현대적 가족주의는 핵가족으로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가족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규범도 혼란한 가운데 자기 가족만의 이해를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로서 변용되고 있다(공미혜, 1992).

2. 가족가치관의 혼란과 청소년의 사회화

이상에서 살펴 본 가족의 변화는 현대 한국청소년의 개인적 발달과 청소년 가족생활에 투영되고 있다. 이는 역사와 사회변화라는 거시적 맥락이 미시적인 가족관계에서 구체화되고 생활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며, 가족은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대행기관이다. 청소년 발달을 위한 가족의 보편적인 역할 또는 과업은 인간발달 및 가족발달 관련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유영주 외, 1990; 조복희 외, 1989; Duvall, 1988; Kaluger & Kaluger, 1979). 특히,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이기룡, 1982; 함종한, 1984; Smith, 1983). 여기서는 가족주의가 중심 가치가 되는 현대 한국가족이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어떠한 배경이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므로써 청소년의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조부모에 대해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의순·조병은, 1990; 서동인, 1991). 따라서,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자녀관계로 국한하는 것보다 조부모, 부모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삼대 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Davis(1967)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재화된 가치가 서로 달라 충돌하게 되는 세대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증폭될 소지가 많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 본 한국가족의 변화과정을 상기할 때 현대 한국가족의 삼대 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의 소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조부모세대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양육되고 성장한 세대이다. 현재의 부모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요구하는 전통적 가족주의가치와 그들이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습득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가치 속에 가치혼란을 경험하는 세대이다. 여기에 비해 청소년 자녀들은 발달적 특성 상 변화와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조부모와 부모세대 간의 가치적 불일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보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부모나 조부모에 비해 서구적 개인주의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와같이 전통적 가족주의가치를 내재화한 조부모, 전통과 변화된 가치가 혼재된 부모, 그리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청소년 자녀로 구성되는 한국의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한국가족은 "청소년이 처한 가족적 현실을 수용하고 행동지침이 되는 가치관이나 윤리체계를 습득"(유영주 외, 1990, p222)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간 갈등 외에 가족의 주체가 되는 부모세대 가치관이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부모세대들의 가치관은 '핵가족주의'로 규정되고 있다(공미혜, 1993; 조혜정, 1985). 우선 '가족주의'라 함은 이들 부모들의 이해가 그들 개인에게 있지 않고 가족집단에 있기 때문이며, 특히 '핵가족주의'라 함은 그들의 이해가 함몰되는 가족집단이 핵가족으로서 그들의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전통사회에서는 토지가 일차적인 생산 수단으로서 토지를 중심으로한 '가계계승'이 가족의 중요한 과업이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계승권을 갖는 노부모에게 가족의 이해가 집중될 수 있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토지는 더 이상 일차적인 가족생산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생산수단화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자녀가 되므로써 가족의 이해는 자녀의 교육에 집중되는 것이다(이미숙, 1994)

가족적 이해가 응집된 자녀 교육열은 입시제도와 맞물려 치열한 경쟁적 양상을 보이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족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공미혜, 1992). 부모는 가족의 본래적 기능은 망각한 채 정신적 및 물질적 희생을 무릅쓰고 자녀 교육에 메달리고, 청소년 자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족적 기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과중하게 주어지는 학습량 속에서 입시를 위한 단순한 지식습득 이외에 청소년기에 개발해야 하는 다양한 인간적 자질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한국가족문화연구회, 1992). 이러한 가족적 배경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나 성적위주의 학교 분위기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국 가족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안

1970년대 이후 20 여년간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재인식이 정책적 기조가 되어 왔으나 청소년문제는 감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청소년 가족 정책의 긍정적 의도와 함께 관점 상의 한계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가족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하는 정책은 "화초 가꾸기식 과잉보호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을 지양하고 엄한 가족윤리 및 생활습관을 고취하는"(청소년백서, 1992) 동시에 친족을 포함하는 가족집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므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한 서구사회의 심각한 가족해체현상이나 정신질환, 성문란, 약물중독 등과 같은 문제를 볼 때, 서구문화에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가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가족주의가 전통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변화된 현대사회의 구조 위에 전통적 가치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공적인 사회영역은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구조원리에 따라 운영되는데 비해 가족생활은 인정에 기초한 전통적 구조원리가 지배하므로써 가족과 사회의 가치는 갈등을 빚을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세한, 1995).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현대 한국사회에 적용될 때 가장 큰 한계는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집단을 넘어서는 국가나 사회의 개념이 희박했고, 특히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족적 집단의식은 그야말로 '내 혈족'에 국한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 혈연집단의 범위는 '핵가족'으로 더욱 축소된 것이다. '사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가족가치관은 청소년이 사회적 질서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양육할 수 있는 가족생활의 기제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가정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못하는 공공질서의식이나 시민적 자질은 가족중심적 사회화과정으로 양육된 한국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도 국가조직이 있긴 했으나 자급자족적인 친족집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자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보다 분화된 사회로서 개인과 가족이, 가족과 사회가 구분되는 가치이며 이들 삼자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체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가족가치관은 구성원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균형있게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치관을 현대가족에 직선적으로 재조명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산업화된 사회구조 위에 청소년을 인격적 개인으로, 조화로운 가족인으로, 또한 기능적인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적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는말 : 종합 및 제언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날 청소년의 다수가 핵가족 속에서 성장

하고 있다. 핵가족화는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상의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된다. 두드러진 변화로서 가족원수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취업모의 증가 및 지역이동율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한편으로는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재 우리의 산업체제로는 가족을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시킬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한국가족이 취하는 핵가족적 형태를 인정하고 청소년 발달을 위한 핵가족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고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전통적 가치관을 재조명하므로써 과잉보호적 자녀양육을 지양하고, 가족집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므로써 청소년들이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가족가치관에는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에 대한 가치가 희박하거나 결핍되어 있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한 가족가치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사회를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가 개별적 가치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분화된 산업사회로 보고, 기능적인 가족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동과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 거시적 맥락과 가족내 청소년 발달이라는 미시적 과정에 대한 통합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능적인 가족상 정립은 학문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주도가 요청된다.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생활을 사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가족문제나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빈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분리해온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역대 정부가 가족생활과 복지의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킬수록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였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대되는 청소년 문제나 가족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어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청소년 발달을 위한 기능적 가족 모델이 실제로 가족생활에 전달될 수 있는 실천체계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심도있는 학문적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작은 시작으로서 가족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건전한 청소년 가족상 정립과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제언을 정리해 본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는 개인의 중요성과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와 균형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가족적 가치 속에 개인의 존엄성이 함몰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어서도 안된다. 그 한 예로 자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희생도 무릅쓰고 입시부정에 말려 든 어머니에게서 가족적 가치 속에 자신의 존엄성을 함몰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개인성 회복과 사회의식의 개발인 것이다.

둘째, 가족의 구성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핵가족은 문제이고 확대가족은 지원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단선적인 가치는 현대 한국사회에 접목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핵가족이 다수라 하여 확대가족이 문제시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가족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풍토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육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세째,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양성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孝親만을 강조하여 자녀의 일방적인 복종을 미덕화하거나, 慈愛만을 강조하여 부모의 일방적 희생을 미화하는 가치의 분열을 지양하고 '慈愛孝親'의 통합된 가치관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김태현, 1992).

이상 현대 한국 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가족의 특성을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핵가족화에 대한 분석은 주거단위, 가족수와 같은 형태적 요소와 함께 친족과의 상호교류 및 상호지원 등과 같은 관계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본 연구의 핵가족화 논의는 주로 형태적 요소에 한정된 것이었다. 친족 관계망 분석과 같은 새로운 연구틀을 통하여 한국가족의 관계적 요소가 규명된다면 핵가족화와 청소년 발달의 관련성은 더욱 효과

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기술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본 논문의 주요 논의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속개되어 청소년 발달에 관련된 현대 한국가족의 특성이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또래집단, 학교환경 및 대중매체 등 청소년 발달의 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강세현(1995). 청소년 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 가정, 학교, 사법기관에서의 통제 경험의 관계. 한국사회학 29, 147-170.
2) 공미혜(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가족학논집 4, 1-20.
3) 권이종(1985). 청소년 지도와 가족관계. 여성연구 3(1), 124-144.
4)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43-156.
5)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태현(1992). 가족과 노인정책. 가족학논집 4, 261-280.
8) 노영남(1982).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 205-223.
9) 조병은 · 박의순(1990). 청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각 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족학논집 2, 28-62.
10)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되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유영주 외(1990). 가족발달학. 서울 : 교문사.
13) 이광규(1983). 한국의 가족제도. 한국문화인류학 15 : 11-21.
14) 이기룡(1982).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 논문집 5, 499-527.
15) 이미숙(1993). 가족의 가치관 및 구조적 특성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5 : 19-42.
16) 이재경(1990). 가족변화와 가족복지. 한국가족론. 서울 : 까치.
17)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연구. 서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8) 이효재(1978). 여성과 사회구조. 여성학신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 이효재(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서울 : 까치.
20) 인구주택조사. 1990. 통계청
21) 조복희 외(1988).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22) 조혜정(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79-90.
23) 정철희 ·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 85-95.
24) 청소년백서(1975-1978). 국무총리기획조정실.
25) 청소년백서(1984-1987). 청소년대책위원회.
26) 청소년백서(1992). 체육청소년부.
27) 한국가족문화연구회. 대학입시와 가족. 1992.
28) 한국통계연감(1990-1992). 통계청.
29) 함종한(1984).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상지대 논문집 5.
30) Schaffer, R.H.(1991). 아동의 삶에 관한 논쟁점과 해답. 한국청소년연구원 옮김.
31) Adams, B.N.(1980). *The family*.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32)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33) Davis, K.(1967). Parent-youth conflict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In H. Rodman.(Eds.). *Marriage,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Random House.
34) Dornbush, S.(1989).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233-259.
35) Duvall, M.(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36) Forisha-Kovach, B.(1983). *The experience of adolescence : development in context*. Glenview : Scott, Foresman and Company.
37) Kaluger G.K. & Kaluger, M.F.(1979). *Human development : The span of life*. St.Louis : Mosby.
38) Lesli, G.R.(1979).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39) Modell, J.(1989). *Into One's Own : From Youth to Adulthood in the United States, 1920-1975*. Berkel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0) Rodman, H.(1967). Talcott Parsons ; View of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In H. Rodman(Eds.). *Marriage,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Random House.

41) Smith, T.E.(1983). Parental influence : a review of the evidence of influence and a theoretical model of the parental influence process.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4, 13-46.

42) Steinberg, L.(1987). Recent research on the family at adolescence : the extent and nature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91-197.